

당신의 추억을 풍부하게 해줄 세계 미식 도시를 찾아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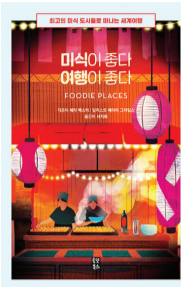
미식이 좋다 여행이 좋다

세라 백스터 지음, 서지희 옮김

모로코의 마라케시는 북아프리카의 무역 중심지였다. 베르베르인들의 고대 요리, 아랍지역의 맛, 다양한 식재료들이 섞여 다양한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 식민지 시기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주요 요인이었다.

이곳의 대표적인 음식은 쿠스쿠스다. 듀럼밀이 주재료인데 마라케시 외에도 리비아,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서부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다. 13세기 발간된 '알모하드 시대의 마그레브와 안달루시아 요리서'에는 관련 요리법이 나와 있다. 냄비에 고기와 채소를 끓인 후 육수에 쿠스쿠스를 끓여 계피를 뿌려먹는다는 것이다.

쿠스쿠스는 원래는 유목민들의 음식이었는데 요리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딱딱한 곡물을 약간의 물과 함께 손으로 밀어 과일 형태로 만들기 끊임없이 반복하는 준비 작업'은 번거로웠다.



하지만 완성이 되면 조리가 빠르네다 값도 저렴해 한끼 식사로 충분했다.

오늘날 음식은 다채로운 표현으로 정의된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만국 공통의 언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명칭만 전하는 누구든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수도승이나 신부, 고위 관료, 농부, 학생 등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떠나 음식은 본질적인 관심사이며 생존에 직결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다. 낯선 곳을 찾아간다는 설렘과 현지의 음식을 맛본다는 기쁨은 여행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세계적인 미식 도시들을 소개하는 '미식이 좋다 여행이 좋다'는 흥미로운 책이다. '최고의 미식 도시로 떠나는 세계여행'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여행지에서의 음식과 인연 등을 담고 있다.

저자는 '원더러스트' 편집장 출신으로 '가디언' 등에 여행 관련 글을 썼던 세라 백스터. 그는 지금까지 '500개의 길에 담긴 세계의 역사', '500곳의 기자 여행지에 담긴 세계의 역사' 등을 펴냈다.

책에는 세계 25곳의 군집 도는 여행지와 대표 음식들이 맛갈스럽고 생생하게 소개돼 있다. 일본, 중국, 베트남,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포르투갈, 페루, 아르헨티나 등 익숙한 나라들이 등장한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에이미 그라임스의 밝고 화사한 일러스트는 소묘력이 뛰어난 저자의 글과 어우러져 생동감을 전한다. 특히 요리가 만들어지는 풍경은 물론 냄새, 분위기 등도 기술하고 있어 마치 현장에 가 있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오사카의 진정한 맛은 패스트푸드다. 1930년대 처음 만들어진 다코야키는 문어가 들어간 일본 음식이다. 밀가루 반죽을 무쇠 틀에 붓고 문어, 절인 생강, 쪽파 등을 올린 뒤 스틱을 이용해 돌려가며 공 모양으로 만든다. 파곤할 때 한입에 넣으면 '졸졸한 겉면이 부드러운 해산물 덩어리가 들어 있는 아주 뜨겁고 쫄쫄한 속으로 섞여 들어가' 최상의 맛을 연출한다.

오코노미야키는 2차 대전 당시 인기를 끌었던 음식이다. 밀가루와 달걀 반죽으로 만든 두툽한 팬케이크가 인상적이다. 부족한 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채 선 양배추와 돼지고기, 치즈, 새우, 고추냉이 등을 넣고 철판 요리 방식으로 구운다.

폴란드의 제2의 도시 크라쿠프는 오바르자네크 크라코프스키로 유명하다. 2차 대전의 참화를 피한 덕분에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등 다채로운 양식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1978년 중심지가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도시다. 오바르자네크 크라코프스키 크라쿠프의 베이글이라는 뜻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소박한 음식이다.



프랑스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는 생선스튜인 부아베스로 유명하며, 모로코의 마라케시는 쿠스쿠스라는 음식이 보편화돼 있다.



아베스, 스페인 발렌시아의 국민음식 파에야, 벨기에 소스트 당케르크의 새우 크로켓과 토마토 오코레메트 등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중국 쓰촨의 마파두부를 비롯해 베트남 하노이의 쌀국수, 프랑스 마르세유의 생선 요리 부

시이다. 효모를 넣은 밀가루반죽을 쪄아 붙이면 링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데쳐 앙귀비씨, 참깨, 허브 등을 뿌려 굽는다.

〈울렛북스·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음의 물리학

정남수 지음

마음만큼 복잡 미묘한 것은 없다. 자신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끄는 것은 힘들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보성 출신 정남수 작가가 쓴 장편소설 '마음의 물리학'은 마음의 역동성을 모티브로 한다. 지난 2020년 월간 '순수문학' 소설 부문에 '다크나이트'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이번 소설에서 "광대 무뎠던 우주를" 품은 마음을 조조화한다.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소재에 '물리학'이라는 자연과학적 시각을 투영한 작품은 이색적인 아우라를 발한다. 농업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저자는 현재 공주대 지역건설공학과에 몸담으며 강의와 소설 쓰기, 저술 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다.

주인공은 어느 날 종교단체에서 탈퇴한 저주로 뇌전증을 앓는다. 그의 내면에는 트라우마가 마그마처럼 잠재돼 있다. 심연 깊은 곳에 자리한 과거의 상처를 더듬으며 주인공은 저항과 옹호 사이를 오간다. 쇠사슬처럼 묶고 있는 과거의 상처는 주인공을 억누르는 강력한 기제다.

작가는 고통의 원인은 인물의 내면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갇혀 있다고 본다. 요동하는 마음을 스스로 다잡을 수 있을 때만이 구원의 여정에 다다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부여한다.

한편 문학평론가인 박수현 공주대 교수는 "이 소설은 신비롭고 무한하며 광대한 마음의 역동에 관한 충실한 보고서"라며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근본 동력인 마음의 실체를 목도하며 그 위력에 위포를 느끼는 한편 그 자유자재함을 깨닫고 구원의 방도마저 찾을 수 있다"고 평한다.



〈문학의 힘·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녕 바오

박남준 지음

"아무래도 생텍쥐페리를 고발해야겠다. 바오밥 나무를 무고한 죄, 세상에 나온 모든 '어린 왕자' 책을 회수하라고, 하루 빨리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라고 말이야."

시작부터 흥미로운 내용이다. 시대를 꿰뚫는 명작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를 고발하겠다는 말이다.

시집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를 통해 조태일 문학상까지 받았던 박남준 시인이 이번에는 생텍쥐페리에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내용을 수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펴낸 에세이 '안녕 바오'를 통해서다.

책은 생텍쥐페리를 고발하겠다는 저자의 '소송선언'으로 시작한다. '작가는 왜 바오밥 나무를 어린 왕자의 별을 닮아먹는 몸속 나무로 그렸을까?' 시인은 이 소소한 질문을 통해 바오밥 나무를 향한 수십 년 오랜 여정을 시작한다.

바오밥 나무는 키가 크고 몸통이 굵지만 가지는 짧다. 다른 식물들의 일조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 때문이다. 시인은 바오밥 나무를 찾기 위해 마다가스카르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어린 왕자처럼 여행하면서 사막을 걸었고 보아뱀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바오밥 나무숲을 마주했다.

시인이 만난 바오밥 나무는 '어린 왕자'에서 생텍쥐페리가 그렸던 '별들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나쁜 나무'가 아니었다. 시인은 독자들이 그동안 바오밥 나무에 대해 알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기로 했다. 또한 바오밥 나무 씨앗을 심고 키우면서 알게 된 작지만 놀라운 비밀을 기록하기로 했다.

"우리 집 화분에는 어린 바오밥 나무, 바오가 살고 있는데요. 거기 어디냐고요? 맑고 푸른 섬진강이 흐르는 지리산 자락 하동 동매마을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억·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말씨, 말투, 말매무새

한성우 지음

품격 있는 말을 주고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올바른 언어 규범과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말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옷매무새를 가다듬듯 '말매무새' 또한 정교하게 다듬어야만, 맵시 있는 문장이 완성될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지역마다, 사회 계층마다 분화되어 온 한국어의 맛과 멋은 고유의 가치를 살리기가 쉽지않은 일이다.

서울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인하대 한국어문학과에서 강의 중인 한성우 작가가 최근 '말씨, 말투, 말매무새'를 펴냈다. 저자는 소리와 방언에 관심을 갖고 '방언정담', '우리 음식의 언어',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등을 펴냈으며 다양한 인문교양서적을 썼다.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호칭과 지칭, 직업 간 분화된 말투를 비롯해 중얼거림에서 비롯하는 구어체의 뉘앙스 차이, 어휘 차이와 화법의 비밀 등 화술의 비밀을 담았다.

1부는 '말씨-이 땅의 모든 말'이라는 주제로 서울과 표준어의 역사, 호칭표현과 정확한 말소리의 규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2부 '말투-말의 주인'에서는 연령과 세대마다 존재하는 말투의 차이를 비교하고,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말투를 통해 여성 화법의 '상냥함'과 남성 화법의 '시끄러움'에 대해 논한다.

각각 '말씨임-말을 이루는 재료', '말매무새-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말할까'라는 주제를 논하는 3,4부도 흥미롭다. 저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말'의 성분과 가치를 분석하고, 보다 정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비밀을 밝혀낸다.

이러나 '말만하얏(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으로 불리는 '잡은 화법'이나 토론 기술, 포용의 미학 등 자신만의 대화 방법론에 대해서도 견해를 펼친다.

〈원더북스·1만7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당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당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